

보도시점 2025. 3. 19.(수) 14:00 배포 2025. 3. 19.(수) 10:30

정부 - 경제6단체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 기재부 윤인대 차관보,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관계부처 - 경제6단체 간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본격 설치·운영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 경제6단체는 회원사들의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핫라인 통해 상시 제출 가능
- 정부는 매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검토결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는 일자리점검반 등을 통해 발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3.19(수) 12:00,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에 이어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이하 ‘핫라인’)」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6단체 관계자들과 핫라인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경제6단체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정부측에 전달하였다.

한편, 정부와 경제6단체는 지난 2월 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설치·운영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와 경제6단체는 특히 어려운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면서,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6단체는 회원사의 고용 애로사항을 핫라인에 상시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신속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는 일자리점검반 등 주요 회의체를 통해 발표하기로 하였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와 이정한 고용부 실장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핫라인을 실속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오늘 제출해 주신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심층 검토하여 추후 일자리점검반을 통해 논의하고, 기업과 검토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가동 등 정부가 기업과 청년의 고용애로 해소에 적극 관심을 가져줘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회원사들의 현장 애로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주성 (044-215-8530)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bbakko0@korea.kr)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10)
		담당자	서기관 김철수 (044-202-721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